

기아차 노조 전원주택단지 만든다

300가구 규모... 조합원 출자 조합 설립 나주시·장성·함평·담양군 유치전 치열

“시에서 보조금을 1000만원 더 보조하겠습니다.”(나주시)
 “광주 첨단지구와 인접해 접근성이 탁월하고, 장성고 등 명문학교로 자녀 교육에 최적지입니다.”(장성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광주 인근에 300가구 규모의 조합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 조합원들의 호응에 따라 500가구 규모의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의 유치경쟁도 치열하다.
 7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

회에 따르면 지난해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던 조합원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최근 착수했다. 노조는 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출자하는 주택조합을 설립해 추진한다. 노조는 연내 조합 설립을 마칠 계획이다.
 단지 후보지는 공장에서 30분 내의 출·퇴근이 가능하고, 땅값이 비교적 싼 지역을 물색 중이다.
 이에 따라 광주 인근의 전남 기초단체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관계자

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담양군은 지난해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장성군은 7일부터 13일까지, 함평군은 14일부터 20일까지, 나주시는 21일부터 27일까지 설명회를 갖는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주·야간 근무를 감안해 각 지자체별로 다섯차례씩 설명회를 열도록 했다.
 담양군은 담양읍 가산마을과 수북면 두정리를, 장성군은 남면 덕진리·녹진리 일대를, 함평군은 월야·해보면 일원을, 나주시는 노안면과 송촌동, 혁신도시 인근을 내세워 전원주택단지 유치를 내걸었다.
 이들 지자체는 도시가스 공급과 도로·수도 등의 기반시설 조성은 기본이고 사랑방·찜질방·보육시설 설치 등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특히 전남도를 꾸려 유치전에 나선

가 하면, 군수가 직접 설명회를 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기아차 노조는 시·군 설명회가 끝나면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입지와 규모 등을 결정하고 이후 주택조합을 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를 통해 더 늘린다는 방침이며 입지에 대한 의견이 갈릴 때는 단지를 몇 군데로 나눠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관계자는 “10년 후 노조원들의 희망을 묻는 질문에 전원주택 생활이라고 응답한 노조원이 많아 공약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주·야근무와 주말특근을 하다보니 전원생활에 대한 바램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가 조합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7일 기아차 광주1공장 교육장에서 장성군 관계자가 전원주택단지 조성 설명회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작년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 27조원 주민 1인당 이자 60만원 넘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이 27조 원을 육박했으며, 1인당 이자부담액만 6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중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 동향의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 가계대출 잔액은 26조9000억 원으로 전년(24조4000억 원)보다 2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8000억 원 증가에서 2010년 2조4000억 원, 2011년 2조5000억 원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가계대출에 대

한 1인당 이자지급액은 60만1500 원으로 2009년 44만6400원, 2010년 49만3000원보다 크게 늘었다. 광주·전남의 이자지급액은 대전·충남(75만100원), 부산·경남(66만1500원), 전북(63만200원), 제주(60만6100원)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제2금융권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제2금융권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6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2조5000억 원)의 61.2%나 차지했다.
 이중 상호금융과 신탁, 새마을

금고 등 신용협동기구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1년 중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대출 증가액은 2조1000억 원으로 광주·전남지역 총 가계대출 증가액(+2.5조 원)의 81.7%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72.7%) 보다 그 비중이 9.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순천공고

고졸 인재 취업지원 협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 우수 고졸 인재 취업 지원에 나선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종만)은 7일 순천공업고등학교와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양 기관은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지원 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원해 취업 활성화를 위한 매개 역할을 앞장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창의적 직업인 양성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공

조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 체험학습 지원, 취업자료 제공, 평생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업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전문가 특강, 전문인력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광양만청은 그동안 한국폴리텍5대학 순천캠퍼스 및 광양만권 HRD센터와 공동으로 조선용접·제강·단조 분야의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총 753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 법률·회계6노무 등으로 구성된 기업사람 자문단을 운영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이밖에 지역 대학생 입주기업 현장 체험학습 지원,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운영, 신대배후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공급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입주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y@

세 일 글

“박람회 성공·광양항 도약 뒷받침”

서병규 여수해양항만청장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광양항 경쟁력 제고와 항만안전관리를 강화해 광양항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5일 제31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에 취임한 서병규(53) 청장은 “전 직원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신명나는 선진조직문화 구축으로 지역발전에 일조하겠다”

고 밝혔다.
 서 신임 청장은 강연도 화천 출신으로 단국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로 1989년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법무담당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등을 거쳤다.
 /동부취재본부=김형희기자 chkim@



전남대생 22명 삼성전자 입사

산학협력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성과

전남대와 삼성전자가 손잡고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채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전남대에 따르면 재학생 22명의 삼성전자 입사가 확정됐다.
 삼성전자와 맞춤형 인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 STP-CNU (Samsung Talent Program-Chonnam National University) 지원센터(센터장 남지승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삼성전자 산학 장학생 22명을 선발, 6개월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이들이 삼성전자에 입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인당 1000만원의 장학금을 받고 전남대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교과과정을 이수했으며, 조만간 삼성전자에 입사해 부서를 배치받는다.
 전남대는 지난 2010년 9월 삼성전자와 맞춤형 인재육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전자컴퓨터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부, 전기공학과, 응용화학부, 신소재공학부 등의 학과에서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육성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은행권 고졸 채용 크게 늘린다

우리銀 200명·기업銀 100명·산업銀 80명

은행권이 올해 고졸 행원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대졸 신입의 근본 원인인 “학력 인플레이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85명의 고졸 행원을 채용했던 우리은행은 올해 200명으로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린다. 상반기에 채용을 마친 후 일선 지점 창구에 배치할 방침이다. 이 중 40명은 고졸 남자 행원으로 채용할 방침이어서 여성 일색이던 고졸 채용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지난해 69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고졸 채용 규모를 늘리는 기업은행도 30명 가량을 남자 행원으로 채용기로 했다. 이들은 지점 창구와 정보기술(IT), 시설관리 분야 등에서 일하게 된다.
 지난해 48명의 고졸 행원을 뽑았던 산업은행은 올해 80명 가량으로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일부는 남성 고졸을 채용하기로 했다.
 외환은행도 고졸 채용 규모를 지난해 31명에서 올해는 50명으로 늘리

로 했다. 지난해 8명의 고졸 행원을 시범적으로 뽑았던 국민은행도 고졸 채용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82.15 (-18.21)
코스닥지수	532.48 (-1.14)
금리 (국고채 3년)	3.50% (0.00)
원·달러 환율	1,124.08원 (+1.9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www.hiddinkhotel.com

문화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

히딩크관광호텔

문화수도광주!
 중심에 위치한 비즈니스호텔 히딩크호텔에서
 당신을 VIP로 모십니다.

주요시설 65개의 객실, 낭만적인 분위기로 보석을 세팅하듯 소중히 모시는 히딩크호텔 웨딩홀 최신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품격있는 연회장

부대시설 스카이라운지, 커피숍, 정통일식레스토랑, 옥사우나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이동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일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